종단소식

조계종

대둔사 부산포교원 개원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1일 부산 동구 범일동에 부산포교원을 개원했다. 대둔사 부산포교원은 20여평에 법당과 요사채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불교정착을 위해 각종 법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봉선사 월초스님 다례재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25일 큰법당에서 월초스님 다례재를 봉행한다. 1913년 봉선사 주지를 역임한 월초스님은 수국사 창건, 원흥사 명진학교, 개운사 강원, 봉선사 홍법강원 등을 설립했으며 1934년 4월 입적했다.

태고종

전국선원 하안거 결제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한 종단산하 전국 선원이 지난 10일 결제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일제히 하안거에 들어갔다.

30여명의 납자가 모인 선암사 칠원선원은 이날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인곡 중앙선원장 지허 스님을 비롯 1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봉행했다.

제주 종무원 노인시설 위문

제주교구종무원(종무원장 수암)은 4월 29일 노인요양시설 제주자비원을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하고 일일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30여명의 동참자들은 7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공양하고 성금을 전달한 한편 노인들의 목욕과 빨래를 도왔다.

천태종

상월조사 24주 열반재

총무원(총무원장 운덕)은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원각대조사 제 24주기 열반대재를 22일 오전11시 구인사에서 봉행한다.

진각종

97회 종조 탄생절 기념

이날 행사에는 김도용 종정, 전운덕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간부와 신도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지난 10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4백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7회 종조탄생절 기념 행사를 가졌다. 〈사진〉

석관 어린이집 위탁 운영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4월30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석관1동에 소재한 석관제일어린이집을 위탁받았다. 석관제일어린이집은 7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4개반에 71명의 원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일붕선교종

대구 교구원장 법성스님

대구교구원장 정법성스님(도광사 주지)은 지난 11일 지산스님의 후임으로 신임 대구교구원장에 부임했다. 〈사진〉

이날 취임식에는 법성 지산스님을 비롯 원로의원 일암 대구종회의장 선재스님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종

묵조선 선방 개설 논의

총무원(총무원장 송정)은 지난 6일 경남 산청 호불사에서 5월 정기 간부회의 및 지리산 노고단 산행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선원장 대휴, 감찰원장 연봉, 포교원장 달제 등 종단 간부 32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묵조선 선방개설 등 종단 주요안건을 임시종회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법사종

포교사·법사 자격고시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는 31일 오전 10시 금강원에서 포교사·전법사·법사 자격고시를 실시키로 하고 응시자를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26일까지. (02)395-2571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농사 지으며 마음 닦으세요"

강원도 평창 약사암 주말농장 개방

3만여평 규모…수익금 복지시설 후원

어려운 시대. 주말마다 찾아가 농사도 짓고 정진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강원도 평창 청정지역에 농작물을 가꾸며 공부할 수 있는 주말농장 기도처가 마련됐다. 평창군 입탄리 백덕산 약사암(주지 성광)은 3만평 규모의 농장을 개방, 불자면 누구나 찾아와 일정 규모의 농장을 분하 받아 농사를 지으며 정진 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농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약사암 주말 농장의 회원이되면 성광스님이 3년에 걸쳐 직접 개간한 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옥수수 무 배추 고추 당근 마늘 등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확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

농장은 계단식 밭으로 형성돼 있어 한 가족이 한 뙈기씩 분하 받기 적당하도록 개간 됐다. 약사암에는 포크레인과 관리기등 장비와 각종 농기구가 준비돼 있으며 회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농가가 마련돼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약사암에는 주말마다 5~6명의 불자들이 찾아와 옥수수와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가꾸고 있다.

약사암은 주말 농장에서 재배된 작물의 일부를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판매해 불교진흥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불교진흥기금은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불교계 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다.

96년부터 농장을 일궈 온 약사암은 그간 재배한 농산물을 강원도내 복지시설에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일부를 판매해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생산불교의 기치를 걸고 농장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만여평의 농장이 마련된만큼 이를 불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하려 합니다. 불자들이 찾아와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남을 위한 복전(福田)도 일구길 바랍니다."

◇강원도 평창 약사암 주말농장에서 주지 성광스님과 회원들이 옥수수를 심고 있다.

성광스님은 농사와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며 생산불교의 실천을 통해 IMF시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농장을 찾아와 일하고 기도하며 자연의 인과법을 이해하는데서 삶의 진솔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약사암은 주말농장 회원 모집과 아울러 농지개간과 불교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만등불사를 봉행키로 하고 인연 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374-33-5490)

평창=임연태 기자

◇북한 신포지구 경수로 공사현장. 불자들의 모임인 연꽃회는 3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갖고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北 경수로현장 봉축등 밝혀

연꽃회 "TV·비디오·법문테이프 등 절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3일 저녁 8시 북녘땅 함경남도 신포지구 경수로 공사현장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의 열기는 뜨거웠다. 경수로 불자모임 연꽃회가 연꽃 등을 밝히며 콘테이너 법당에서 정문~시공단사무실~법당을 돌며 경수로 지역에 부처님의 자비를 울려퍼지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창립된 연꽃회는 북녘에서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날을 위해 4월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먼저 휴가자편으로 국내에서 '부처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현수막을 제작해와 모든 근로자가 모이는 식당외곽벽에 부착했다.

또 회원 사찰의 도움을 받아 연등 재료를 국내에서 선박편으로 반입해 종이연등과주름등, 대형연등등을 만들어 법당과 외벽을 장엄했다. 그리고 초파일 하루전인 2일 저녁에는 초파일전야법회를 봉행했으며, 3일 오전 봉축법회와 오후 8시 제등행렬법회 등을 진행했다.

연꽃회 김경철회장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경전독송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초심자들인 회원들이 스님들의 법문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큰스님 법문테이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태고종 복지재단 설립

자원봉사·장학·국제구호사업 등 전개

태고종 중앙사회복지재단(가칭)이 설립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7일 서울 총무처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법인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중앙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수탁,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장학사업 △종도의 상호부제사업 및 공제사업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 △사회복지연구, 출판, 교육, 상담 및 후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종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단에 복지법인 없어 종단 산하 각 사암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법인 설립을 계기로 사회적 기여는 물론 종단적으로도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영령 천혼법회 광주 망월동 묘역서

광주민중항쟁 18주기를 맞아 추모행사가 마련된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원효사주지)는 16일 망월동 5·18 신묘역에서 '5·18민주영령 천혼대법회'를 봉행했다.

무각사 주지 광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현지 광주불교사암련회장스님의 봉행사 지선백양사주지스님의 법어, 정수민 5·18 유족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2부행사로 허지연씨등 10명의 살풀이와 인간문화재 공옥진씨의 추모공연이 펼쳐졌다.

원효성사 탄신 1381돌 경산 제석사 다례재

원효성사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경산 제석사(주지 대경)는 오는 29일(음 5월4일) 원효성사 탄신 1381주년을 맞아 다례재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재는 1부 다례재와 2부 문화공연으로 나뉘 진행된다.

대전 연합신도회 창립 초대회장에 한만우씨

대전불교연합신도회(회장 한만우·대전상공회의소 회장)는 27일 대전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날 법회는 1부 창립법회에 이어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초청법회, 최윤희무용단 및 대전불교합창단의 초청공연 등이 진행된다.

대전지역 재가불자 1백여명으로 결성된 대전불교연합신도회는 정기법회를 비롯 청소년 포교 및 장학·복지·환경정화사업 등 각종 불사를 펼칠 계획이다.

평생일군 절 신도회 기증 제주 홍룡사 홍순녀 보살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평생일군 사찰(시가 30억원)을 신도회에 기증한 노보살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주시 도평동 속칭 용장굴 태고종 홍룡사를 가꿔 온 홍순녀보살(70). 홍보살은 2천년부터 모든 권한을 신도회에 넘기기로 하고 부처님오신날인 3일 신도회 총회를 갖고 사찰명의 등기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룡사는 52년 남편인 덕종스님이 초가법당을 짓고 77년까지 운영해 왔다.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 찾습니다"

부지 30만평 확보…내년 대웅전 기공

"미국 포교의 큰 원력을 지닌 스님을 모십니다." 미국뉴욕 원각사가 주지스님을 초빙한다.

원각사는 71년 숭산스님의 가정법회로 출발, 76년 법안스님(前 동국대부총장)이 중심이 되어 3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뉴욕 거주 교포와 미국인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88년 법안스님의 건강이 악화돼 혜관스님을 새 주지로 추대했으나 혜관스님마저 재작년 열반해 지금은 신도회와 이사회가 원각사를 운영하고 있다. 임광우 신도회장은 "현재 대웅전 불사기금으로 30만달러가 조성되었으며, 내년에 대웅전 건립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교포들의 신앙을 이끌고 미국에 한국불교를 알릴 원력을 펼칠 스님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12-927-7255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木(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700㎖ 4병 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